

빛나간 性 - 동성애 & 성도착증

A씨는 25세 된 남자 대학생이다. A씨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온 말 못할 고민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었다. 2남 1녀의 차남으로 평범한 중류가정에서 자란 A씨는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신경을 써본 적도 없었다.

A씨는 비교적 작은 키와 남자로서는 예쁘고 귀여운 외모 때문에 집 안에서나 밖에서도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랐다. 중학교 2학년 때 A씨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에게서 자위행위를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다. 그때 이후로 여러 번 그 친구와 어울려 함께 자위행위를 했던 A씨는 어느 날 친구로부터 직접 자위행위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친구의 집요한 요구에 못 이겨 자위행위를 해주었고 점차 그런 행위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A씨는 학교친구들과 어울려 본드를 하다가 그중 한 친구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 그 일로 인해 충격과 죄책감이 컸지만 이상하게도 그 후론 남자들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을 느끼는 일들이 반복되었고 여자들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 않아 마음 한편으론 자신이 정말로 동성애자가 아닌가 점차 걱정이 되었다.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신의 이런 내밀한 문제를 누구에게

도 드러내지 않은 채로 지냈다.

졸업 후 지방 소재의 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A씨는 우연히 같은 과 남자 선배와 함께 자취방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점차 그 선배의 남성다움에 마음이 끌리는 일이 많아서 무척 괴로웠다. 어렵게 1학년을 보낸 A씨는 군대에 가면 그런 생각이 없어질까 하여 자원하여 군대에 입대하였다. 그러나 군대에서도 A씨의 이런 말 못할 고민은 계속되었고 특히 같은 내무반 동료들과 함께 목욕을 할 때마다 성적인 흥분감과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서 이리 저런 핑계를 대며 목욕을 기피하는 일이 많았다.

동성 남자보면 성적 흥분감

제대 후 억제할 수 없는 호기심에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인다고 알려진 서울 시내의 한 극장에 찾아가던 A씨는 거기서 만난 한 중년남자와 처음으로 성행위를 하게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괴로워하던 A씨는 자신이 정말로 남자가 맞는지, 그리고 혹시 자신이 병적인 성도착증을 지닌 정신질환자는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처음으로 병원을 찾게 된 것이다.

동성애란 개인의 성적인 성향이나 행동이 이성보다는 동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의학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성적 지향성(orientation)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인 쾌감을 추구하는 성도착증(paraphilia) 환자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A씨의 경우 동성애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잠재적인 동성애 성향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성적 주체성(gender identity)의 혼란이라는 문제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주체성이란 자신이 남자, 혹은 여자라는 내적인 느낌을 반영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신이 소속된 사회, 문화와 연루된 태도, 행동양식, 남성 및 여성과 연관된 속성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생물학적인 특징만으로 성을 구분하는 성(male or female sex)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건강한 성 주체성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있게 '나는 남자요' 혹은 '나는 여자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적 주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성적 역할(gender role)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적 주체성에 대한 자신의 내적인 느낌을 외부로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가능하다. A씨의 경우는 우연히 발견하게 된 자신의 잠재적인 동성애 경향으로 인해 성적 주체성에 혼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였다.

우리나라에 과연 동성애자(homo-

25세 된 남자 대학생, 그는 자신이 정말로 남자가 맞는지

그리고 혹시 자신이 병적인 성도착증을 재닌 정신질환자인지 잘못할 고민이 있었다.

비교적 작은키에 귀여운 외모를 재닌 그는 고때 한 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대학생활과 군입대 후에도

동성의 선배나 동료들을 보면 남성다움에 마음이 끌리고 성적인 흥분도 느꼈다.

제대 후에도 억제할 수 없는 호기심에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이는 극장까지 찾아가

한 중년남자와 성행위를 하게된 그는 끝내 병원을 찾게 되었다.

sexuals)가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 선진 외국의 경우도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전체 인구의 1% 내외를 완전한 동성애자로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 잠시 동안 동성애적 경험을 한 사람이나 동성과 이성 모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한 양성애자(bisexuals)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몇배 더 올라간다. 일반적으로 남자 동성애자(gay)가 여자 동성애자(lesbian)보다 더 많으며, 남자 동성애자들이 사춘기 이전에 동성애 경험을 처음 갖기 쉬운데 반해 여자 동성애자들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야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처음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기 정신발달 빛나기

동성애의 원인으로는 주로 정신분석적 원인론과 생물학적 원인론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신분석적인 견해에 의하면 동성애란 아동기의 정상적인 정신성적 발달 과정이 어떤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 중단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즉 동성애자들은 어린 시절에 동성 부모와의 동일시를 통해 자신의 성적 특성을 발전시켜나가질 못하고 오히려 이성 부모를 동일시하여 동성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는

태도가 잠재되어 있다고 본다.

반면 생물학적인 원인은 남성 호르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남성 동성애자들은 정상 남성들에 비해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젠(androgen)의 혈중 농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태어나기 전에 안드로젠에 과도하게 노출된 경험이 있는 어린 소녀들이 대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 반면에, 자궁 내에서 여성 호르몬에 과도하게 노출된 경험이 있는 소년들은 또래 남자애들에 비해 암전하고 비활동적이다. 뿐만 아니라 동물 실험에서 출생 전 안드로젠에 충분히 노출되었던 수컷들이 나중에 성장하여 암컷을 성적 파트너로 찾는데 반해, 그렇지 못했던 수컷들은 같은 수컷을 성적 파트너로 찾는다는 보고도 있었다. 한편 일란성 쌍생아들이 이란성 쌍생아에 비해 어느 한쪽이 동성애자일 경우 다른 한쪽도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동성애자가 되는 데는 남성 호르몬의 역할이 크며 유전적인 영향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동성애와 달리 성도착증은 강력한 성적 충동과 더불어 성적 흥분을 얻기 위해 비정상적인 대상이나 방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성적 장애의 일종이다. 대개 젊은 남자에서 발생하는 성도착증의 대표적인 예로는

여성의 내의나 손수건, 구두, 밴드 같은 물건들을 수집하고 이것을 성적 공상이나 자위행위를 하는데 사용하는 여성물건애(Fetishism), 성적 흥분을 위해 이성의 옷을 입은 채로 자위행위를 하는데서 성적 극치감을 느끼는 의상도착증(Fetishistic transvestism), 낮은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갑자기 노출시킨 후 자위행위를 통해 성적 극치감을 얻는 노출증(Exhibitionism), 노출증과는 반대로 타인의 성행위나 성기를 반복적으로 훑쳐봄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는 관음증(Voyeurism) 등이 있다. 한편 사춘기 이전의 소아와 성행위를 갖거나 그런 성적 공상을 함으로써만 성적인 흥분감을 느끼는 소아성애증(Pedophilia)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주로 중년 이후의 남자에게서만 발견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도착증 중 가장 흔한 유형이다. 그밖에 영화나 소설의 주제로써 많이 등장하는 성적 가학증(sexual sadism)이나 성적 피학증(sexual masochism)의 경우는 비록 발생 빈도수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난폭한 성폭행이나 성폭행과 관련된 살인사건과 같이 강력사건과 관련되기 쉬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⑤7

柳凡熙

〈성균관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정신과〉